

음악교육동향*

〈교사연수행사 나눔〉

음악수업 이야기 마당을 마치며

한승모(인제남초등학교)

하나의 꿈이 또 끝나간다.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로 계속 움직인다. 아주 일찍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음악교과 회의, 한국음악교육학회 이사회에서 설계를 했으니 2016년 2월이었을 것이다.

현재 한국 교육계에는 큰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로 실천교사모임이다. 현장의 교사들의 실천이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누리집을 만들고 책을 몇권 만들더니 이제는 원격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300명이상이 모이는 자리를 만 1년 사이에 세 번이나 만들었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실천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학교의 일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음악 교육에 관심있는 교사와 학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생각을 해 보았다.

웃으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즐거움과 배움이 함께하는 그런 꿈같은 음악수업이 우리 옆에 늘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음악을 못한다며 음악시간을 그냥 건너뛰고, 무엇을 가르칠지 잘 모르겠다며 음악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임무완수’하듯이 체크해가며 지나가는 수업이 오히려 더 많다.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더 알려지고, 교사들과 학자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생각했다.

한국 음악교육학회의 구성원들이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 연구, 현장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국 음악교육의 큰 축으로 여러 가지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이 곳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워크숍 강의나 우수 수업 사례의 내용들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참가도 적을뿐더러 학교의 교사들은 이런 학회의 내용이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거라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는 편견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이 이뤄지는 최종의 현장에는 교사와 학생이 존재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학회내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올해 학회 사업으로 학회내에 교사들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학자들과의 교류를 이끌어 내는 사업을 생각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 음악수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소재가 되리라 생각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수행평가 확대 방안이 나왔고, 이 방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중등음악교사들 사이에서는 이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각종 교육부의 정책 활동과 교사 연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09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초중등 학교 음악수업과 평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가 민망하고 가슴시린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론시간에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을 술자리에서 이야기 나누듯이 가감 없이 편하게 나누고 싶었다.

이 자리를 통해 새로 시작하고자 하던 이야기들이 있다.

첫째로, 이해이다. 음악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음악교사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초등교육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초등 교사들이 학생들과 음악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중등 음악교사들이 알면 좋다. 중등 음악교사들의 수업과 일상을 아는 것이 초등 교사들에게 당연히 필요하다.

또, 교사와 학자들간의 이해도 필요하다. 학자들은 교사들이 어떤 수업을 원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 제자들 외에 다른 교사들에게 많이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한다. 또 교사들은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음악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알면 좋을 것이다.

지금 음악교육 현장은 교사들끼리도 이해가 부족하고, 교사와 학자사이에도 이해가 부족하다. 중등교사들이 사대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교사와 교육 이수한 교사들간에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해는 정말 필요하다.

이해를 위해서는 편안하면서도 내실있고 의미있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콜로키움 형태의 자리가 그에 적합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이름은 더 편해야 했고 ‘음악수업 이야기 마당’이라는 행사의 큰 제목을 정하게 되었다.

둘째로, 살펴보기이다. 많은 초등교사들에게 음악수업은 꺼내기 어려운 나의 과거와 같다.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물어보면 음악수업, 음악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다. 또, 그만큼 쉽게 정의되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과정의 주기가 짧아지고, 국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며, 사회는 더 많은 변화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가치있는 음악수업과 음악교육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위해서는 세밀한 살펴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초, 중등 음악수업 평가를 설문으로 살펴보았다. 아주 객관적인 연구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을 교사들 스스로 많이 만들어 내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음악교육 학자들에게는 사례를 전하고, 다른 교과들의 모임에서도 음악수업이 이렇게 움직이고 살피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또, 학급운영이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많은 단체들에게도 음악수업을 나누며 언젠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교육을 전하여 협력된 더 나은 교육적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첫 걸음이 교사들의 음악수업과 현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로, 음악교육의 힘 높이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이 삶에 중요하고, 음악교육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서 사회에서 음악과 음악교육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실천이 과연 함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 음악교육을 실천하면서 과연 우리는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힘을 키우고, 알리는 노력을 잘 하고 있는가 보아야 한다.

여러 형태의 교육운동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신들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가들이 실천하고 그 실천을 바탕으로 함께 반성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모임을 교사들 스스로 고민하며 만들고 키워가고 있다. 음악은 교과이기도 하지만 삶에 중요한 한 축이다. 어떠한 교육운동의 주제보다도 크고 중요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음악의 범위를 교과 이상으로 생각하여 많은 교육 활동과 운동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많은 교육단체들과 연계해야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가치와 추구 방향이 비슷한 한국아카펠라교육연구회, 인디스쿨음악수업모임을 협력 단체로 하여 홍보와 참가를 함께 하였다. 또,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원격연수원과 음악교과서 출판사를 섭외하여 음악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도 노력하였다. 아마도 음악을 잘 모르는 많은 교사들에게 음악과 관계된 선생님들이 참 많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더 알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음악교육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 외에도 학원, 유아음악교육, 음악 전문인을 위한 교육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음악교육이 더 힘을 내고, 힘을 모으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해야 한다.

우리에게 감동을 만드는 음악이 있고,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으며,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번 행사가 이러한 노력의 첫 발걸음이 되었기를 바란다.